

[고3] 15분 모의고사 Final 3회

이름 :	풀이시간:	분	점수:	/ 총 100점 (각 10점)
------	-------	---	-----	------------------

1. (나)가 (가)를 고쳐 쓴 글이라고 할 때, 검토한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나)
<p>우주인이 우주선에서 달리기를 하려면 탄성이 좋은 끈으로 몸을 고착시켜야 한다. 무중력 상태라서 몸이 공중에 뜨기 때문이다. 끈에 묶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끈이 몸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몹시 불편한데 그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주인들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몸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몸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뼈와 근육의 밀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다.</p>	<p>우주인이 우주선에서 달리기를 하려면 탄성이 좋은 끈으로 몸을 운동 기구에 고정시켜야 한다. 우주선은 무중력 상태라서 몸이 공중에 뜨기 때문이다. 그런데 몸이 끈에 묶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끈이 몸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몹시 불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인들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몸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몸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뼈와 근육의 밀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다.</p>

- ① 호흡이 긴 문장을 알맞은 길이로 나누어 준다.
- ② 어색한 번역 투의 피동 표현을 자연스럽게 고친다.
- ③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문장 성분을 보충한다.
- ④ 접속어를 사용하여 문장 간의 연결을 긴밀하게 한다.
- ⑤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적절한 단어로 대체한다.

2.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쇠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표준어이다.
- 옛날에는 ‘쇠고기’를 ‘쇠고기(쇼+익+고기)’라고 했다. 이 경우 ‘쇼+익(관형격 조사)’는 ‘쇠’로 축약된다.
-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도티고기(돌+익+고기)’라고 했다.

- ① ‘쇠고기’는 옛말의 구조를 고려할 때 소의 고기라는 뜻이군.
- ② ‘쇠고기’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쇠고기’의 옛말은 ‘돼지고기’의 옛말과 그 구조가 달랐다는 말이군.
- ④ ‘소고기’는 동물 이름에 바로 ‘고기’가 붙은 단어이군.
- ⑤ ‘닭고기’의 옛말은 ‘돌기고기(닭+익+고기)’라고 했겠군.

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것은?

< 보 기 1 >

- ‘-마는’: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 보 기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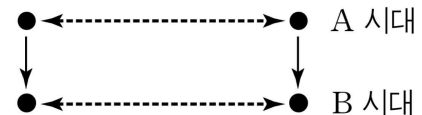
- 여행을 가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어 쓰려무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진화하고 변화하는 대상으로 보고, 언어학이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을 어느 정도 고찰하지 않고서는 그 언어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파울의 말로 대변된다.

(나) 이러한 경향에 반해 소쉬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더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그 자체로서의 가치 체계와 변화에 따른 가치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언어를 정확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자는 하나의 상태 앞에 있을 뿐이며, 화자에게는 시간 속에 위치한 현상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무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 소쉬르에 따르면, 공시태는 위 그림에서 가로축에 해당한다. 공시태는 공존하는 사항 간의 관계를 말하는 동시성의 축이며, 시간의 어떠한 개입도 배제된 정적인 언어 상태이다(A 시대, B 시대). 통시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다(A 시대 → B 시대).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말은 현상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언어학자의 방법론이나 관점을 말하기도 한다. 공시적 연구는 언어의 한 상태를 고찰하는 것이고, 통시적 연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고찰하는 것이다.

(라) 소쉬르의 개념과 방법론은 언어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쉬르가 공시태를 정적인 상태, 즉 정태와 동일시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 언어는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야콥슨은 음운 변이는 변하지 않는 언어 요소들과 같은 자격으로 공시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 정태와 ㉡ 공시태를 동의어로 보는 것은 오류라고 하였다. 마르티네노 언어가 변화하지만 기능이 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언어의 기능을 기술하려 할 때에도 그 언어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소쉬르가 말한 공시태 개념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수정한 것이다.

4. (나)의 소쉬르의 관점에서 (가)의 파울의 관점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에는 역사의 유물과 같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어학은 과거의 언어와 관련된 사실을 밝힐 수 없다.
- ② 화자의 말은 발화 당시의 언어 상태를 반영하므로 언어 연구는 그 당시의 언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③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변화의 내용보다는 변화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 ④ 현재의 언어와 과거의 언어는 각각 정적인 상태이지만 전자는 후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자연 현상과는 달리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언어는 인과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5. <보기>와 같이 '좁쌀'이란 단어에 대해 정리한 후, (다)에 쓰인 용어들을 적용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좁쌀'의 중세 국어 어형은 '조밭'인데, 이는 '조ㅎ'과 '밭'이 결합한 것이다.

◦ '조밭'은 'ㅂ'이 'ㅅ'으로, '·'가 'ㅈ'로 변화하여 오늘날의 '좁쌀'이 되었다.

◦ '좁쌀'의 'ㅂ'은 '밭'의 흔적이다.

- 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좁쌀'은 현대 국어에서 공시태이겠네.
- ② 현대 국어를 공시적으로 연구할 때는 '좁쌀'의 'ㅂ'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겠네.
- ③ '밭'이 어떻게 '쌀'이 되었는지를 고찰하면 그것은 통시

적 연구이겠네.

- ④ '쌀'로 변하기 이전의 '밭'은 중세 국어에서 통시태이겠네.
- ⑤ 중세 국어에서 '조밭'을 '조ㅎ+밭'로 분석하면 그것은 공시적 연구이겠네.

6. (라)를 바탕으로 ㉠과 ㉡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날아가는 화살이 한 순간에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순간에도 이동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 ②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성장이 멈추는데, 이때 성장하는 과정이 ㉠이고 성장이 멈춘 상태가 ㉡이다.
- ③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퍼즐판의 상태는 다른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 ④ 음표는 악보에서는 기호이지만 연주될 때는 소리인데, 악보의 음표가 ㉠이고 연주된 소리가 ㉡이다.
- ⑤ 정지했을 때 보는 산과 이동 중일 때 보는 산의 모습이 다른데, 전자가 ㉠이고 후자가 ㉡이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얼마의 「발스 센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포 씨 아니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상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애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고ծ하여 보이고 ㉡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료,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의 의욕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모를 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給)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 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최 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鵝)의 「승방비곡(僧房悲曲)」*과 윤백남(尹白南)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 보험 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최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

서 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고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서는 벋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벋에게,

“나감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승방비곡」·「대도전」: 193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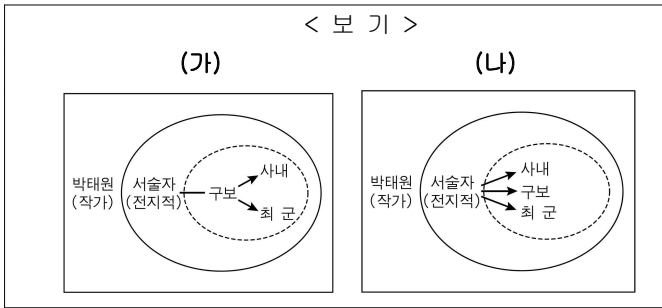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 ④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 ⑤ 첨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8. ㉠~㉥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 ⑤ ㉤: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9.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감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 ③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 ④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 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0. 위 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사내 :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오. 대단하지요? 자, 대충 보았으니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턱내지요. -----①

최 군 :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품이 화제랍니다. 저 작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야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②

구보 : 글쎄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③

최 군 :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 거실에 걸어 두면 품이 날 텐데,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④

구보 :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⑤

<수고하셨습니다.㉠>